

'빅맥지수'라 하여 맥도널드 햄버거의 값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을 비교할 정도로 미국의 패스트푸드는 세계를 평정했다. 햄버거와 코카콜라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는 미국 식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지구촌 식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엥클샘' 바람... 머핀, 도우넛 등 미국식 제품 속속 도입

베이커리의 본고장 유럽도 '바람'을 피할 수는 없다. 유럽 베이커리업계는 머핀, 초콜릿파자(브라우니), 소프트 쿠키, 도우넛, 베이글 등 미국식 제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꽃 본 나비' 모양으로 제철을 만난 곳이 이런 미국식 제품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이미 유럽에 진출한 미국업체는 물론 유럽 원부재료업체들도 미국식 제품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다운푸드(Dawn Foods)사는 미국의 우수한 원부재료업체로서 막싱, 아이싱 재료만으로 전세계에 걸쳐 연간 4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이다. 5년전 영국에 사무실을 개설한 이 회사는 최근 수개월 동안 유럽 각국에 프리믹스를 수출했고, 현재 아이슬란드, 러시아에서 다운사의 도우넛 및 머핀 믹스를 사용하고 있다.

다운사는 시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유럽 본토 공략의 일환으로 독일과 스페인을 첫 '제물'로 삼았다. 미국 도우넛의 맛과 배합이 다르지만 두 나라가 도우넛에 친숙해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도우넛이 2월 축제를 전후한 시기에 가장 많이 팔리고 그 외에는 주로 3월에서 8월 사이에 판매된다. 스페인은 1인당 도우넛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다운사는 파자류를 많이 소비하는 독일 소비자들에게 가격보다 질이 더욱 중요하며 따라서 강력한 재료 배급망이 구축되었을 땐 고부가가치 프리믹스 및 토핑물의 판매가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스페인 시장 공략의 장애물로 지역적인 시장 특성과 낙후된 배급망을 꼽고 있다.

유럽대륙, 엥클샘을 부른다

미국식 머핀, 도우넛, 쿠키류 도입 확산... 원부재료업체 '부산'

美 원부재료업체, 입맛의 차이 고려한 제품 개발에 박차

다운사는 언어가 같고 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한 영국조차도 입맛이 미국과 다름을 발견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버터크림이나 크림치즈가 없어진 것을 좋아하는 반면 대부분의 영국 소비자들은 롤빵이나 딱딱한 파자 조각에 코팅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기호는 점차 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영국 시장에서 부드러운 초콜릿 토핑의 수요가 미국을 능가했음은 이를 입증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영국 프리믹스 업체들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초콜릿 토핑재료를 같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에 국한될 뿐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다운사 측도 이 점을 인정한다. 다운사는 '순수' 미국산 제품임을 알리고 싶지만 유럽의 지역적, 제품적 특성에 맞춰 원부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양 대륙의 전통과 기호는 대서양의 거리를 두고 차별화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특성에 '눈높이' 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美 카라반(Caravan Products)사이다. 이 회사는 지난 4년간 영국에서 사업을 벌여 사우어 반죽빵과 베이글, 피자 믹스로 100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계열회사인 브릴(Brill)사는 도우넛, 파자류의 필링 및 아이싱 분야로 영국에 진출해 있다. 양사는 유럽인들이 일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저당도의 제품에 익숙해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제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미국회사들이 '유럽용'으로 내놓은 제품들이 '부메랑'처럼 본국에서도 인기를 누리는 경우도 있다. 다크초콜릿 파자아이싱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제품은 원래 유럽 시장을 겨냥해 출시되었다. 좋은 반응을 얻었던 이 제품은 본국으로 '역류'되어 미국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미국식 제품의 원부재료에 대한 수요가 늘자 유럽내 원부재료 업체들도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독일의 아벨 쉬퍼사는 82년 이후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지난 iba쇼에미국 케이크 도우넛 믹스를 선보임으로써 이 시장에 뛰어 들었으며 벨기에의 퓨라토스 사도 iba쇼에서 이 제품을 소개하였다. '초대 받은 손님', 엥클샘의 제품들이 유럽 베이커리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